

학교중퇴를 선택한 과학영재에 대한 사례연구

허 무 열

공주대학교

전 미 란

공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학교중퇴를 선택했던 영재학생들 두 명을 대상으로 학교를 그만두기까지의 학교생활과 중퇴를 선택하게 된 요인을 알아보았다. 면담, 관찰, 문서 및 어린 시절 비디오 분석의 삼각측량 사례연구 결과, 첫째, 일반 학생들에 맞추어진 학교 학습에서는 많은 시간 기다려야 했고 지루했으며 특별히 기대했었던 과학영재교육원에서도 만족하지 못하였었다; 둘째, 다른 학생들과 관심을 갖는 부분이 달라서 흥미를 교류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다; 셋째, 일반학생들이 간과하는 문제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남다른 정서적 민감성과 정의감으로 인하여 힘든 경험들이 있었다; 넷째, 이해해주지 않았던 학교 교사들과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 다섯째, 평범하지 않은 자녀를 위해 최대한 지원해주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지적 정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재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게 됨으로써 학교환경과 영재교육원 교육이 다시 한 번 돌아볼 기회가 되었으며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학교중퇴, 과학영재, 영재교육, 사례 연구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영재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되는 학생들이 주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학교에 잘 적응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는 영재학생이 학교를 중퇴한다는 것은 더욱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영재학생들 중에서 그런 고민을 가진 학생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재학생들은 그냥 내버려두어도 충분히 학업적인 성취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영재학생들은 이미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교신저자: 전미란(mrc318@kongju.ac.kr)

* 이 논문은 2012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McCoach & Siegle, 2007; Tomlinson, Tomchin, & Callahan, 1994). Bain, Bliss, Choate와 Sager-Brown(2007)은 76%의 대학생들이 영재학생들은 특별한 도움이 없어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영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적어도 문제점을 드러내거나 특히 학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El-Zraigat(2012)에 의하면, 일반학급에서 시간을 보내는 많은 영재학생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에는 오히려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영재학생들은 지적 능력이나 학업적 성취, 그리고 행동 패턴이나 성격 특성 등에서 아주 다양하며 그 범위가 일반학생들에 비해 매우 크다(El-Zraigat, 2012; Hallahan, Kauffman, & Pollen, 2012)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영재학생들이 같은 또래에 비해 학교에도 더 잘 적응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재학생들이 더 적응의 문제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다(Kirk, Gallagher, Anastasiow, 2003).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들에 대한 몇몇 연구(Schwartz, 2002; Suh & Suh, 2006)를 보면, 학교중퇴를 선택하는 이유는 개인적, 사회적, 가정과 학교의 환경 등이 관련이 있는데, 학교에서의 지루함이나 부적응, 동기나 자존감의 부족, 미성취, 교사와의 갈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의 요인을 연구한 Gewertz(2006)에 의하면, 잦은 이사, 임신, 아르바이트 등이 학교중퇴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영재들은 근본적으로 지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사회·정서적 발달도 우수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영재의 높은 인지적인 요소와 사회, 정서적, 신체적 발달의 불균형, 즉 비 동시성 발달(Silverman, 1993)에서 오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 Webb 등(1982)은 모든 영재아들은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하였으며, 윤여홍(2000)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재아들은 보통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독특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영재에게 적절한 교육적 선택이 충분하지 않은 주어진 상황에서 영재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키고 적절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는 교사와 부모는 영재학생들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El-Zraigat, 2012; Hallahan, Kauffman, & Pollen, 2012; Smith, 2007; Vaughn, Bos, & Schumm, 2007)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영재의 정서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며, 이들의 학교 및 사회에의 적응을 도와주고 나아가 이들의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일은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그 이유는 첫째, 영재의 정서적, 사회적 특성이 지적 성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고, 둘째, 영재의 정서적, 사회적 특성이 그들이 장차 잠재력을 실현해야 할 사회에의 적응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영재가 사회에 부적응하면 정서장애나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 자살과 같은 병리현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영재의 부적응은 개인적으로는 고통과 불행이 되지만,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인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윤여홍, 2000). 영재들이 사회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내적인 혼란을 경험하며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나 희망 목표 등을 상실하고 낮은 성취를 이루기 때문이다(El-Zraigat, 2012).

최근 들어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양적 성장과 함께 관련연구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영재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영재의 인지적 특성과 관련하여 영재의 판별이나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이었고 주로 양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그 효과성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영재아의 지적 발달 이외에도 사회·정서적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특히 영재학생은 성취를 이루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오해를 버리고 영재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내면의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중퇴를 선택한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중퇴를 선택하기까지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학교중퇴를 선택한 이유나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교육 현장에서 영재학생들은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영재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심지어 그들을 학교현장에서 떠나고 싶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만큼의 의미가 있을 것이며 추후 좀 더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중퇴

학교중퇴의도(Intent to exit school)는 이직과 같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으로부터의 완전한 관계단절을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Hirschman, 1970). 김기태 외(1996)에 의하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원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원인으로, 신체적 원인은 신체적 결함, 뇌 손상, 지능지수의 저하 등을 말하고, 심리적 원인은 자신감 결여, 불안감, 학교생활에서의 갈등과 좌절 등을 말하며, 사회적 원인은 교사나 교우와의 관계, 부적절한 가정환경 및 가족 내에서의 열등감, 유해한 지역사회 환경 등을 말한다고 하였다. 박창남과 도종수(2003)도 청소년 학교중퇴의도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회귀분석 결과 중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요소가 학습내용의 불만, 학교교칙의 불만, 교사의 낙인임을 알아내었다.

또한 박수민(1998)의 중퇴 유형을 살펴보면, 중퇴 결심동기에 따라 능동형과 도피형, 그리고 불가피형으로 구분되며, 첫째 ‘능동형’은 재학생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퇴하는 경우이고, 둘째로 도피형은 학교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뚜렷한 대안도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즉 부딪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학교에 다니기 싫고 학교 밖의 흥미로운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막연히 중퇴하는 경우이다. 셋째로 불가피형은 학교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퇴한 경우로 집단 형편상 계속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 심각한 비행으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현재 학교의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부담, 전문직 지식과 개입기술의 부족 등으로 학생들이 가진 문제나 욕구의 해결에 있어서의 조력활동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에 있어 능동형 중퇴도 늘어나는 현실이다(정준교, 2001).

지금까지 발표된 학교중퇴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요인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과 학생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 요인들로 보고되고 있다. 이중에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으로는 학습내용, 학교교칙, 교사관계 등과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중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성애와 강문희, 2005).

2. 학교중퇴 학생들의 특성과 경험

학생들의 학교 중퇴에는 개인적, 사회적, 가정적인 영향과 학교와의 다양한 변인과 관련되어 있다(Hansen & Toso, 2007). 학교에서의 지루함이나 동기부족, 미성취, 교사와의 관계 불만, 낮은 자존감 등의 문제들이 이와 관련이 된다(Schwartz, 2002; Suh & Suh, 2006). 게다가 잦은 이사나 임신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이 학교 학습에 방해가 되며 학교를 중퇴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Gewertz, 2006).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 중퇴에 인종별로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남미 인종의 사람들이 아시아 인종의 사람이나 백인종의 사람들보다 학교 중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흑인 학생들이었다고 하였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5). 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은 주로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저성취자로 구분지어진단던가 교사들에게 이미 낙인이 찍히고 그래서 무시당하거나 적어도 한 두 과목 정도는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Beatty, Neisser, Trent, & Heubert, 2001).

Coley(1995)와 Drapela(2006)는 영재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실상 많은 부모들이 먼저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학교에서의 반응에 대해서는 많이 실망하였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교를 중퇴하는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들은 학교보다 더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9학년이 넘어가면 학교 중퇴를 중재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Drapela, 2006). Coley(1995)와 Drapela(2006)는 또한 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이 주로 취직을 잘 못하고 있으며 취직을 하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상 통계적으로도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3. 영재학생들의 학교중퇴

대부분 영재학생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재아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외국의 연구를 보면, 전혀 상반된 두 가지의 관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첫 번째 관점은 Terman 등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영재아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여 적응에 어려움이 없고, 따라서 특별한 문제나 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관점이다(Dirkes, 1983; Shore & Delcourt, 1996). 이와 상반된 두 번째 관점은 Hollingworth 등의 관점으로 영재아에게는 특별한 욕구와 문제가 있어서 특별한 교육이나 조치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Altman, 1983; Hayes & Sloat, 1989; Silverman, 1993). 이 두 번째 관점의 연구자들은 Terman 연구의 표본이 환경적으로 유리하고, 교육적인 혜택을

받은 영재아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영재 학생들이 겪고 있는 사회-정서적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영재아의 학습부진 및 미성취, 부적응의 문제에 대한 연구들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Whitmore, 1980; Rimm, 2008). Renzulli와 Park(2000)은 학교중퇴 영재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학교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학교를 중퇴한 영재학생들은 학교에 남아 있는 영재학생들과 비교해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었고 부모들이 학교 활동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었다고 하였다. Hull-Blanks, Kerr, 그리고 Kurpius (2004)는 어떤 영재아들은 충동적이기도 하고 어떤 영재아들은 공격적이며 어떤 영재아들은 자아존중감이 낮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특성들은 영재학생들이 그들의 특별한 필요를 위해 왜 그들에게도 특별한 교육제공과 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알려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Renzulli와 Park(2000)은 학교가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보여주는 미성취나 학업에 지장을 주는 행동 등의 경고 신호에 대하여 무관심하다고 지적하였다. 오랫동안 영재의 특성에 대해 연구를 해왔던 Silverman(1993)은 그러므로 영재학생들은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위험에 있는 학생들을 미리 알아보고 학생의 필요와 흥미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며 부모와 협조하여 학교 중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nzulli & Park, 2000)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인 은진(가명)이와 선우(가명)는 약 9년 전부터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알던 학생들이다. 사전예비관찰 기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 부모님들은 연구대상자들이 어릴 때 평범하지 않았던 특성으로 인하여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학교에서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지만 하면 이 학생들의 능력과 특이점을 알아보는 교사를 만날 수 있고, 이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게 될 것이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었다. 연구자도 그렇게 조연하였었고,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들이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었을 때 모든 것은 다 해결되었다고 안심하였었다. 하지만 영재교육은 잠시 약간의 도움이 되었을 뿐 결국은 학교중퇴를 선택하고, 각각 일 년과 일 년 반의 공백 기간을 가진 뒤에 검정고시를 통하여 중학교를 뛰어넘는 것으로, 또 다른 한명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둘 다 어릴 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책을 더 좋아하였으며, 무엇이든지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일에는 집중력이 대단해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모를 정도였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생각이 깊다거나 자연과 주변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걱정, 뉴스에서 접하는 테러나 기아 문제에 대하여 유난히 걱정이 많다는 점 등 이 두 연구대상자는 공통점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연구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 표 1 > 연구대상자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	사례 1 (은진)	사례 2 (선우)
생년월일	1999년 1월 3일(16세)	1997년 11월 20일(18세)
학교경력	2011년 학교중퇴 1년 공백 2학년을 뛰어넘어 고등학교 재학 6개월 현재 대학 검정고시 준비 중	2011년 학교중퇴 1년 6개월 공백 미국으로 이민
부모 직업	부: 의사 모: 주부	부: 태권도 학원 모: 미술 학원(이민 후 주부)
가족사항	부/모/자매	부/모/형제
부모학력	부: 박사 모: 석사	부: 학사 모: 학사
영재교육원 경험	2년	3년

사례 1.

본 연구의 대상자인 은진이는 두 돌이 되는 생일잔치에서 책을 읽는 바람에 오신 손님들을 놀라게 했던 적이 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도저히 부모가 사 주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부모님은 동네 도서관이나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은 가능한 많이 구해주었다. 책을 한 권씩 암기하기도 하였다. 만 세 돌이 지날 때쯤 목련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목련꽃이 깃털처럼 날린다”고 하기도 하고, 시를 쓰면 “꿈속에서 나비가 내 코끝에 앉아서...”라고 하기도 하여 주변 어른들을 놀라게 하였다. 5살 때는 치과에 치료받으러 가서 그곳에 있는 해골 모형을 보고 프론탈본, 만드블머 같은 뼈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암석 이름 같은 것은 쉽게 외워서 돌멩이를 볼 때마다 맞추어 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풀이나 곤충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 학교에 입학하고는 줄곧 백점을 받아오지만 학교생활을 그렇게 즐겁게 하지는 않았다. 4학년 때 영재교육원에 합격하고 수학과 과학에 두각을 나타내며 발명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하였다. 5학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약한 친구를 이용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 아이들과 지내는 것을 힘들어 하였고 또 그런 친구들은 은진이를 위모도 안 가꾸고 엉뚱하고 혼자 생각 많이 한다고 싫어하였다. 성적은 초등 저학년 때 모든 시험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거나 소리 나는 대로 받아쓰기를 해서 틀리는 등의 실수가 없었으며 5학년에 혼자 책을 사다가 검정고시를 준비하였다.

사례 2.

선우는 학교 성적도 좋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선생님들도 모두 칭찬하는 학습태도와 리더십을 모두 갖춘 모범생이었다. 하지만 선우는 다른 친구들이 하지 않는 남다른 고민을 하는 아이였다. 또래 친구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공해, 전쟁, 환경오염 등에 고민하면서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 선우를 걱정하였던 부모님은 다행히도 모두 교

육에 관심을 많이 보였고, 넉넉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데리고 다녔고, 박물관, 동물원, 영어캠프 등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하게 하여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학교생활도 잘 하는 것처럼 보였고 영재교육원에서 실험하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발명대회나 항공모함대회 등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가 싫다며 가고 싶지 않다고 반항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자기는 학교에서 아는 것도 아는 척 못하고 항상 모르는 척하느라 힘들었고, 아이들과도 자기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길에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의 엄마가 자기 책가방을 막 열어보았다고 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기에 그렇게 잘하냐고 하면서 노트도 다 열어보았다고 당황해 하였다. 그 동안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온 것이라면서 학교를 그만 가고 싶다고 하여 부모님은 무척 당황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어릴 때부터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지적 정의적 특성들로 인하여 부모에게 걱정을 끼쳤던 은진이의 선우가 더 이상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중퇴를 결정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학교 중퇴 선택을 하게 된 요인을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 관찰, 그리고 문서 및 어린 시절 비디오 분석의 삼각측량이 이루어졌다.

면담은 연구대상자, 각 연구대상자의 부모(은진이의 부모/ 선우의 모), 교사(은진이의 중학교1학년 과학교사/ 선우의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와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학생들 및 연구대상자들의 부모와는 연구 시작 전부터 오랜 시간 연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면담을 위한 레포는 충분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연구가 시작된 이후 공식적인 면담은, 대상 학생들과는 집에서 1회씩 각각 1시간 정도, 은진이의 아버지와는 그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2회 각각 1시간 정도 이루어졌으며, 은진이의 어머니와는 집에서 2회와 커피전문점에서 2회 각각 2~4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선우의 어머니와는 학교에서 1회 2시간 이루어졌다. 교사와의 면담은 전화상으로 연구의 취지나 내용을 설명한 후에 약속을 잡고 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며, 각각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열린 질문과 편안한 환경에서 심층적인 면담을 하는 질적연구 방법으로 그들이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며 연구자의 관심이나 선입견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노력하였다(Patton, 2002). 그 이후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이용하였는데 특히 선우가 미국으로 떠난 다음에는 이메일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연구대상 학생들은 이메일에서 좀 더 솔직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대상자들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지, 학교생활은 어떠했는지, 학교중퇴를 결정하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관찰은 연구대상자들이 어릴 때 연구자가 수차례 오랜 시간 수업을 관찰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다시 돌려보며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도 하였다. 각 연구대상자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어릴 때 그렸던 그림이나 초등학교 입학 후에 기록했던 일기장, 학교에서 받아왔던 성적표나 상장 등을 모두 보관하

고 있었으므로 문서 분석이 가능할 수 있었다. Huberman과 Miles(2002)가 제안하였듯이, 이러한 문서들은 연구대상자들의 지적인 특성과 정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은진이와 선우의 일기장을 통하여 학교에서 있었던 그들의 경험과 고민, 특정행동의 이유나 독특한 생각, 내면적 의식 등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

모든 인터뷰는 녹음되었고 문서를 검토하면서 만들었던 필드노트와 함께 전사 분석되었다. 질적 연구에서 오랜 시간을 끝수록 연구자의 관심이 흐려지고 미결된 부분을 해결하는 일이 어려워지므로 분석은 자료수집과 함께 가능한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Taylor와 Bogdan(1998)의 지침에 따라 가능한 빨리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귀납적 방법이 사용되었으며(Huberman & Miles, 2002), 이 과정에서 자료의 주제와 상호관련성을 확인하면서 이에 따라 분류하고 범주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첫 단계로 자료와 자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집된 모든 자료를 여러 차례 읽어보았다. 그리고 자료를 읽으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문장에 우선 밑줄을 긋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표시를 하거나 의미를 기록하면서 그 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소화해서 자료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요소를 발견(이종승, 2009)하고자 노력하였다.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구절과 문장은 코딩작업을 하였는데, 이 코딩은 자료를 조직화하고 의미 있는 요소로 재구성하도록 해주었다. 몇 개의 개별 자료가 하나의 범주로 통합되고 몇 개의 범주다 또 하나의 큰 주제로 통합되면서 의미 있는 개념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과학영재로 선발되어 영재교육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던 과학영재 학생들이 학교중퇴를 선택하게 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행되었으며, 수집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학교 중퇴 결정에 영향을 주었던 요소는 학교 학업에 대한 불만, 흥미를 교육할 수 있는 친구의 부재, 정서적인 민감성, 영재 이해 교사의 부족, 부모의 충분한 지원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1. 학교 학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다.

선우와 은진이는 각각 인천과 서울에 위치한 과학영재교육원 영재교육 대상자였으며, 두 명 모두 학교를 중퇴한 것은 중학교 때였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거나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학교중퇴의 문제가 짝이 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둘 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일반 또래보다는 빠른 지적 발달을 보였는데, 이는 은진이 어머니의 면담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 있었다.

두 돌에는 혼자 읽고 세 돌 쯤엔 쓰더라구요. 글씨는 혼자 익혀 좀 안 이뻐지만 ... (중략)... 책을 무섭게 읽기 시작해 첨엔 글을 알아도 4살까진 읽어줬는데 하루에 그림 있는 책은 50권씩도 읽어 달래서 3시간 4시간 화장실도 못갔구요. 책을 읽으면 주위 소리를 못 들었는데 29개월쯤에 제가

녹음해 놓은걸 들어보면 책을 한권씩 외워 페이지만 넘기면 그림보고 정확하게 시작을 맞춰 외웠어요 …(중략)… 시를 썼는데 꿈속에서 나비가 내 코끝에 앉았네 머 이런 걸 쓴다던가 하더라구요. 우리 나이로 5살 땐 치과치료를 받으러가서 그곳에 있는 해골모형을 보고 프론탈본, 만드블머 이런 뼈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돌멩이 보면 암석 이름을 잘 알기도 하고 풀곤충을 잘 알았죠. 동생을 임신했을 땐 우리 나이로 5살이었는데 육아 책을 다 읽어서 제가 초음파사진을 보러 들어가서도 개가 의사쌤이랑 이야기하기도 했구요.

이렇게 은진이의 지적 수준이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보다 빠른 것은 은진이로 하여금 학교 학습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은진이가 학교의 모든 활동을 싫어하거나 지루해했던 것은 아니었고, 지적으로 자각이 되는 활동은 즐기고 그렇지 못했던 시간을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였다. 다음은 은진이 어머니와의 면담내용이다.

한생원 생명과학반에서는 특출한 학생으로 정말 칭찬받고 재즈댄스도 하고 작은 벽돌로 집짓는 활동도 하고 나름 소속감을 가진 곳에선 열심히 하고 인정받았지만 그때까지 학교에서 모르는 걸 가르쳐주진 않았대요. 학교는 재미가 없으면서 학교에서 읽을 책을 늘 몇 권씩 챙겨갔어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학생들의 편 가르기, 잘사는 집 친구들이 하는 대화 같은 걸 힘들어하고 새로운 공부에 늘 갈증을 느끼더라구요.

은진이 어머니는 “은진이가 아이들처럼 잘 지낸 것도 계속 자신을 숨기고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해온 게 컸나봐요.”라고 하며 “유치원 때부터 아는 것을 숨기는데 사력을 다해온 게 보였거든요”라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또한 은진이도 일반 학교 학업이 얼마나 자신에게 맞지 않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진주 학교에서는 아는 것을 10%만 얘기하면 되고 서울에 와서 OO초등학교에서는 20%만 된다면 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는 음… 40%? 어릴 때 다녔던 사립OO에서는 70%? 그렇게 하면 되었던 것 같아요 …(중략)… 일단 저처럼 이상한 애들이 많았구요.(웃음). 무슨 토론을 하다가 쌍둥이들과 싸운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주 즐거웠어요. 일단 학교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구요.

이렇게 학교 학업에 대해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은 선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선우의 어머니는 “선우는 어릴 때부터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 세 살 때부터 숫자를 더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교에서 숫자를 쓰기만 한다고 싫어했었죠.”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어릴 때 모습을 안타깝게 표현하였다.

선우는 집에서 숙제를 하면서 금방 좋아요. 예를 들어 ‘가위’ 한 바닥을 써오는 게 숙제이면 글씨도 잘 쓰면서 쓰기 싫어서 한참 걸리고 두 세줄 쓰다가 좋아요. 하품도 하고 …(중략)… 근데 실내화 갈아 신는 곳에서 한참을 서 있는 거예요. 운동장도 보고, 교실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보고,

그러면서 한참을 앉아있다 종이 치면 들어가더라고요. 그 뒤로 바라다주면서 몰래 봤는데 항상 그랬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교실에 일찍 들어가면 뭐든지 구구단을 쓰거나 문장을 반복해서 쓰거나 공책에 무언가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선우가 학교수업에서 흥미를 느낄 수 없어 힘들어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비디오로 보관되어 있던 선우가 초등학교 다닐 때 대학원생과의 대화에서 더 잘 드러난다.

대학원생: 선우가 잘 풀었구나.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어?

선우: 다른 아이들은 못 풀었어요. 왜냐면 아직 아이들은 내각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걸 몰라요. 학교에서는 지금 각을 아직 숫자로 표시하지 않아요. (각 표시를 하며) 그냥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중략).

대학원생: 그래? 선우가 아는 것들이라 재미없어?

선우: (눈을 피하며) 네.

대학원생: 선우가 다 아는 내용이라 흥미가 없나보구나. 그럼 수업 시간엔 어떻게 해?

선우: 그냥 참고 들어요.

대학원생: 왜?

선우: 다른 아이들은 모르니까요.

선우는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수학 시간에 풀었던 문제는 재미있었는지 신나서 설명해 주었던 일이 있었다고 하였다. 선우의 어머니는 “학교에서 평소와는 달리 자기가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가 주어진 것이 신기하고 신났던 것 같아요.”라고 하였으며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굉장히 즐겼어요.”라고 하며, 학교에서 늘 그렇게 즐겁게 해주었다더라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었다. 선우는 단순한 문제에서는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어려운 문제에서 오히려 높은 과제집착력을 보여주는데 선우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했던 가장 큰 요인은 학교에서는 늘 지루했고 새로운 것은 없었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두 학생들은 학교 수업보다는 영재교육원 수업을 선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훨씬 할 수 있는 것이 많았고 재미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영재교육원에서도 그들의 학업에 대한 갈증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또 하는 경우도 있었고 내용이 너무 쉬워서 학교 수업과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낸 경우도 많았다고 하였다.

사실 학교수업과 비교할 수는 없죠. 학교에서는 무슨 활동을 하면 항상 저 혼자 해야 하고 아이들이 그때만 제 옆으로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영재교육원에 가면 다들 열심히 하니깐 다같이 할 수 있고 …(중략)…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좀 재미없을 때가 많았어요. 너무 빠른 걸 할 때가 많고 작년에 했던 건데 똑같은 실험을 또 하기도 하고….

은진이와 선우는 모두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것을 힘들어했고, 결국 본인들이 학교중퇴를 결정했는데 각각 은진이와 선우의 어머니들의 다음과 같은 면담 내용에서 중퇴결심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그 무렵 은진이는 6살 때부터 어린이 과학동아 등 잡지를 4개 정기구독 하고 있고 수학도 선행으로 중학생걸 하고 있었고 한문도 초등 일학년 때 6급을 했고 읽는 책도 점점 수준이 높아졌어요. 서울 올 때 5천권이 넘는 책이 이미 포화 상태였는 데다 학교도서관 동사무소도서관 구청도서관 책 등을 가족이름으로 많이 본 상태였어요. 매일 책 빌려보고 청계천에서 사다주고 인터넷에서 2.30권씩 주문해 본 상태라 어느 날 자기가 검정고시를 치겠다고 알아보고 헌행법상 초등졸업은 해야 하니까 5학년 때부터 준비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검시책을 다 주문해놓고 내용도 다 조사해서 저한테 통보했어요. 생리대 브래지어 모두 자기가 스스로 사서 준비했고 초등 1학년 때도 꽃집에서 특별한 날은 주소만으로 꽃배달을 다니는 아이였기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로 했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선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들이 보는 백과사전 같은 책에 관심이 많았고 어른들이 보는 신문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광고도 보고 그러면서 엄마 여기 데커레이션이 무슨 뜻이야? 하면서 영어도 자연히 배우게 되었던 거고, 영어도 책이랑 신문을 보면서 하도 단어 뜻을 하도 많이 물어봐서 사전도 사주고 했었거든요. 신문 보면서 한자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요 ... (중략)...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무언가에서 이탈하는 것 같아서 무서웠지만 선우가 불쌍한 표정으로 아주 진지하게 학교를 그만 다니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더라구요.

은진이나 선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또래보다 훨씬 빠른 지적 발달을 보였지만 일반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업에서 늘 지루하게 조용히 기다리는 것을 배웠다. 학교 학업에 대한 불만족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학업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시간이 지속되면서 은진이와 선우는 모두 학교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중퇴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흥미를 교류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다

은진이와 선우는 둘 다 공통적으로 학교에서 흥미를 교류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다. 그렇다고 따돌림을 당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우의 초등학교 교사와의 면담에서 그 이유를 조금 엿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조금이라도 나오는 다르다고 생각하면 어울리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이 보기에 선우는 보통 아이들과 다른 점이 많았죠. 역양이나 쓰는 어휘들이 보통 친구들하고도 다르고... 말을 할 때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대화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들도 그걸 느끼고... 그래서 친구 관계 형성이 잘 안됐었어요.

은진이의 어머니도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이 친구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아주 어릴 때 어린이집에 보냈었는데 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수업에 있었어요. 아마도 공개수업이었던지... 선생님이 돌돌이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뭐지요? 하시니까 아이들이 “돌”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중 한 아이가 “Rock”이라고 하니깐 모두들 와아 하며 환호했는데 우리 아이가 “화강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때 선생님이나 다른 아이들이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걸 보고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미리 느낄 수 있었어요. (웃음)

선우의 초등학교 때의 일기장에서는 ‘친구 좀 사귀어 둘 걸’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친구에게 관심을 표현하거나 친구의 필요성을 느낄 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우는 어떤 시기에는 또 친구를 필요없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선우가 초등 고학년 때 모 대학의 영재교육 전공 대학원생이 선우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때 면담비디오를 보면 “난 친구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난 친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대답하거나 “아니~ 친하긴 친한데, 사귀는 건 귀찮아요.”라는 응답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당시 선우는 “몰라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은 저거 하고 싶다고 하면 양보해야 하나까 그런 거 맞추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요 자기가 한 번도 방귀를 편 적이 없대요. 근데 그건 과학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짜증이 나요.” 등 학교 친구들과 잘 맞지 않았던 것이 잘 드러나 있었다. 이와는 달리 선우가 영재교육원 친구 한 명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선우도 언급하였지만 선우의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친구를 다 싫어했던 것은 아니고 영재교육원에서 1년 정도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와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 애는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그 애랑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함께 말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리고 과학상식을 얘기할 수 있어서 좋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영재교육원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갔고 그렇게 흥미를 교류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던 학교에서는 그냥 적당히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선우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선우의 초등학교 시기를 회상하였다.

어떤 학년에서는 반장도 하고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아 보여서 마음을 놓았고 어떤 학년에서는 교실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며 책만 읽고 왕따처럼 굴어서 많이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선우 말이 자기가 맘대로 조절할 수 있대요. 자기가 아는 것도 말하지 않고 애들만 생각하고 놀면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게 피곤하고 애들은 책도 안 읽고 이상한 장난만 치고 재미없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나 읽고 말도 잘 안하고 하면 금방 이상한 애 취급받고 한다면...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말에 놀랐었어요.

연구자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문제를 안고 도움을 요청할 때부터 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학생들이 친구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선우는 대화 중에 “그럴 수는 또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 친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말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은진이도 “같이 화장실 가는 게 저는 참 싫었지만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학교에 물의를 일으키는 거니까...” 등의 말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은진이와 선우는 학업에서의 흥미를 교류할 친구가 없었고 자기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친구도 없었으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나 흥미를 가진 것에 대해 나눌 친구가 없었다.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친구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맞추어주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3. 정서적인 민감성과 정의감으로 인하여 힘든 경험이 있었다

은진이와 선우는 어릴 때부터 모두 정서적으로 민감하였고 다른 영재의 특성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다른 정의감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는 걱정을 많이 끼쳤는데 선우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그 때를 회상하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원인 모르는 악몽에 시달리고 그 횡수가 너무 잦아져서 어린이보호재단에 있는 아동심리사 선생님과 상담을 나누고 놀이치료를 했었죠. 상담과 치료결과는 '학습 및 애정욕구가 본능적으로 너무 많아 해소되지 못하여 꿈속에서 그 모습을 형상화한다' 고 하셨고... (중략) 학교도 자주 결석하고 그랬어요 ... (중략) ... 그리고 고민도 많고요. 선우는 전쟁도 걱정되고, 공해도 걱정되고, 환경오염도 걱정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쓰는 스프레이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이 음식물을 남기면 그것도 걱정이 되고 그랬어요. 자기가 먹기 싫어도 음식물 남기면 환경오염이 될까봐 음식도 억지로 꾸역꾸역 다 먹고 그러다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나봐요.

선우는 또래 친구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공해, 전쟁, 환경오염 같은 주제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학교에 즐겁게 적응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이런 점에 무관심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심지어 속상한 마음에 고쳐보려고 노력도 했었지만 그냥 상처만 받았었다고 하였다. 선우의 어머니는 선우를 이해하고 아는 일이 참 어려웠다고 한다. 겉으로 보이는 것 그대로가 선우의 진심이 아니기 때문인데, 엄마가 속상할까봐 학교 가기 싫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학교 숙제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거나, 등교해서는 교실에 들어가기 싫은지 한참을 밖에서 서성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우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알고 있었고, 학교에 가야하는 일이 당연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은진이도 어릴 때부터 또래 아이들보다 정서적으로 민감하였으며 남들이 걱정하지 않는 일들을 혼자 짊어지고 자기가 마치 어른이라도 된 것처럼 걱정을 많이 했었다고 하였다. 사회 문제에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뉴스를 보지 못하게 했을 정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특성들로 인하여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였다.

애가 웃을 잘 안 갈아입는데 원래 고집이 센 아이라 저도 그냥 두었고 ... (중략)... 그런데 5학년 이 되자 친구들이 약한 친구들을 이용하는 게 보기 힘들고... 친구들은 은진이가 외모도 안 가꾸고 엉뚱하기도 하고 혼자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 (중략)... 친구가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해서 그럴 때마다 호의로 사주고 했는데 계속 돈을 달라고 하고 심지어 태풍주의보가 있었던 날에도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 발짝 늦게 이게 아니구나 했대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으셔서 그냥 사과 받는 선에서 마무리 했는데 은진이에게는 상처가 되었나 보더라구요. 그 이후에 그런 식으로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에 대해 집에 와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괴롭히는 아이들과는 트러블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서로 좋은 친구가 아니라 서로 뒷담하고 이용하고 패로 나뉘고 하는 것들을 정말 힘들어 했었어요.

4. 교사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

보통 영재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도 잘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모두 교사들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우의 경우는 선우의 성격상 혼자 참고 삭이는 편이었고 은진이의 경우는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선우는 어릴 때 학교에만 가면 궁금한 것도 다 알게 되고 공부를 많이 하니가 정말 재미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한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교는 무언가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선우는 초등학교 때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수업 시간에 자기가 계속 질문하는 것을 선생님이 싫어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었다고 하였다. 워낙 생각이 많았던 선우는 자기가 수업 시간에 대답과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나서 행동을 조심했다고 하였다. 선우의 어머니는 “선우는 학교 선생님들께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선우는 학교가 배우는 곳이 아니라는 실망도 많이 했었어요. 딱 1년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지만...” 하며 선우가 교실에서 손들고 서 있었고 부당하게 청소도 했었다며 그래서 선우는 사실 영재교육원 선생님을 더 좋아했었다며 옛날을 회상하였다.

은진이의 경우에는 여러 번 교사들과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고 하였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답이 없었대요. 근데 선생님은 초등과정에서는 답이 있는 거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선우는 원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똑 끊어서 사실상 가르쳐주는 내용이 더 혼돈스럽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또 있어서 과학이나 수학이나 어떤 땐 배울수록 속상하다고 ... (중략)... 전과목에서 한 개를 틀렸는데 자기는 비워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틀리는 건

괜찮지만 뭔가 굉장히 크게 어긋나는 기분이라 했어요.

다들 공부를 안 하니가 분위기가 그렇고 선이가 가끔 하는 질문에 선생님들 중에서는 싫어라 하고 시험에 안 나오는 생각한다고 도전적으로 받으시기도 하니가 은진이는 이해가 안 되나 보더라구요. 초등 땐 부담스러워 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6학년 때는 성적이 1등은 아니니까 좀 인정 안 해주시기도 했고 오히려 은진이가 늘 학교 청소를 열심히 하니가 4학년 5학년 때는 교내정수기 소독을 매일 시키시고 좀 부당할 만큼 탄 친구들 것까지 시키셨어요. 6학년 담임선생님은 선이가 주변이 바쁘면 대신 바꿔주길 잘하니까 대 놓고 못하는 사정 있는 아이에게 선이한테 바꿔주라 해서 선이가 그때부터 자기 일만 하는 일도 있었구요.

그런 것까지는 그래도 그런가보다 했는데 좀 더 부당한 일들이 은진이를 더 힘들게 했었다고 하였다.

제가 학교 내의 일은 선생님 재량이라 관여를 안했더니 독서퀴즈대회도 시험 쳐서 나가게 되기로 했다가도 탄 친구가 나가기도 하고... 과학탐구 발표를 엄청 준비해 갔는데 첨단 장비 가져온 아이를 이기지 못하고 전교생 과학과 선생님 전체 투표로 세 명 추천받은 중등영재도 나중에 두 명은 바뀌어서 나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은 은진이를 힘들게 했어요. 오히려 영재반 선생님이나 한생원생명탐구선생님, 클레이 만들기반 선생님들께서는 아주 높게 평가하시는데...

은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사투리를 사용하였는데 선생님이 사투리 쓰는 것도 고치라고 하셨다고 하였다.

그래서 은진이는 선생님께 고친다는 건 잘못된 걸 고치는 것 아니냐고 자기는 표준말로 바꾸는 걸 권유받으면 생각해보겠지만 그래도 참 배운 말을 뜻이 전달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공적 인말은 사투리를 안 쓰는데 표준말은 옳은 거며 사투리는 틀린 거냐고 그래서 고쳐야 하는 거냐고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시쳇말로 찍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두 대상자 모두 항상 그랬던 것을 아니지만 학교 교사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으며 이러한 일들은 조금씩 학교생활을 힘들게 하고 학교와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 자녀를 위해 최대한 지원해주려고 노력하는 부모를 가졌다.

두 학생의 공통점 중 하나는 둘 다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고 최대한 지원해주려고 노력하는 부모를 가졌다는 점이였다.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도 학교를 그만 두더라도 그냥 놀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뒷받침을 할 수 있었으며, 특히 아버지들도 자녀 교육에 열정을 보였다. 은진이 아버지의 경우 병원 일이 바빠음에도 면담에 응해주었으며 면담 내내 진심으로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심지어 앞으로 대학교에도 가

야하고 인생을 잘 살아가야 할텐데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는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도 보였다. 은진이 아버지는 은진에게 다음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준 것을 뿌듯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일년 동안 홈스쿨했네요. 3, 4, 5, 6, 7월에는 공부하고 8월초에 시험 쳤어요. 7월에 외국으로 휴가도 갔고 중간에 여행도 많이 다녀왔어요. 9월부터는 대만에도 가 있었고 책보고 과외도 많이 했어요. 엄마는 학교 보낼 때보다 더 힘들다고 했지만 은진이는 좋아했어요(웃음).

선우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자녀의 교육에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선우 어머니의 표현에 의하면 선우가 어릴 때부터 일반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썼던 것 같다고 하였다.

선우아빠는 선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워낙 예민한 걸 아는데 아이가 표현을 안 하니까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웃음)...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아이가 필요한 부분을 다 채워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중략)... 자기는 미국에 가면 힘들죠. 낯선 땅에서... 물론 태권도장을 하면 되니까 돈 버는건 그렇다 쳐도 친구도 없고... 그런데 선우한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결정했어요.

물론 은진이와 선우의 어머니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자녀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은진이 어머니의 경우 학교 교사였는데 자녀교육 때문에 주부가 된 것이었으며 선우 어머니도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자녀 교육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였고 결국 그만 두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자녀의 지적 발달보다는 정서적인 안정에 많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자녀가 영재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언제나 걱정이 많은 편이었고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교중퇴를 선택한 과학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동안의 학교생활과 학교중퇴를 선택하게 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았으며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과학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한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학생들이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를 알아본 결과, 학교 학업과 영재교육원 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고, 흥미를 교류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으며, 정서적인 민감성과 정의감으로 인하여 힘들었고, 교사들과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으며, 최대한 지원해주려는 부모가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박수민(1998)의 중퇴 유형을 살펴보면, 중퇴 결심동기에 따라 능동형과 도피형, 그리고 불

가피형으로 구분되며, 첫째 ‘능동형’은 재학생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퇴하는 경우이고, 둘째로 도피형은 학교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뚜렷한 대안도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즉 부딪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학교에 다니기 싫고 학교 밖의 흥미로운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막연히 중퇴하는 경우이다. 셋째로 불가피형은 학교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퇴한 경우로 집단 형편상 계속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 심각한 비행으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둘 다 ‘능동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은진이와 선우의 경우는 그들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퇴를 선택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의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부담, 전문직 지식과 개입기술의 부족 등으로 학생들이 가진 문제나 욕구의 해결에 있어서의 조력활동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에 있어 능동형 중퇴도 늘어나는 현실(정준교, 2001)이라는 지적을 고려해볼 때 추후 이러한 일들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Beatty, Nerzser, Trent, & Heubert(2001)의 연구에서 알아낸 일반 학생들의 중퇴와는 다른 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보통의 경우는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부정적인 면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즉 주로 성적이 낮거나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에 비해 은진이와 선우는 학교에서 성적도 우수하였고 특별히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영재의 학교 중퇴는 Hansen과 Toso(2007)의 연구에서처럼 오히려 학교의 커리큘럼이 전혀 도전적이지 않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교사나 동료 학생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했던 것들이 학교를 떠나고 싶게 만들었던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을 볼 수 있다. Jost(1997)는 영재학생들은 복잡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습내용이나 도구를 준비할 때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며, 영재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켜주기 위해서는 커리큘럼과 교수학습 방법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도 학교 학업에서는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학교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운 적이 없다”거나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등의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그리고 선우가 학교 현관에서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오랜 시간 힘들어 했던 것들을 생각해볼 때 이 학생들은 이미 학교 중퇴를 결정하기 이전부터 학교학습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영재교육을 포함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Hansen과 Toso(2007)의 연구에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갔던 영재학생들은 그들의 문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Hansen & Toso, 2007; Renzulli & Park, 2000; Thorp, 2004)를 살펴보면, 학교중퇴를 선택하는 영재학생들은 빠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문제소지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또는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도 갈등을 겪었고, 술이나 담배 또는 마약까지의 문제를 가지기도 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은진이와 선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두

학교를 중퇴한 것은 중학교 때였지만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학교중퇴의 문제가 짝이 튼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이다.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거나 친구들과 적절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부터 문제가 겹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학교와 친구들과는 갈등을 경험했지만 가족들로부터는 무한한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술이나 담배와 같은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이는 문화적인 차이 또는 성격적인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를 중퇴한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Renzulli와 Park(2000)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다른 학생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었다는 것을 알아내 었거, Thorp(2004)의 연구에서도 학교중퇴를 심각하게 고려했던 학생들에게는 다른 학생들과의 ‘분리’경험이 있었다고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도 영재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흥미를 교류할 비슷한 수준의 친구가 없었고 그런 것들이 학교생활을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 을 알게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 학생들과의 분리 경험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원의 다른 영재 학생들과도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일반 학생들과는 지적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면 다른 영재학생들과는 지적 수준과 흥미는 비슷하지만 그런 학생들도 많지 않았으며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 예를 들면, 교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점수에 지나치게 예민한 것 등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스럽게 영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민감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다른 우수한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무시하거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 문제나 편가르기 등이 학교생활을 견디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영재학생들이 가지는 민감성에 기인함으로 생각할 수 있다. Hansen과 Toso(2007)의 연구에서도 고등학교를 중퇴한 영재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특성이 민감성이었다. 그 외에도 많은 학자들(Clark, 1988; Hartsell, 2006; Piechowski, 1997; Roeper, 1988)이 영재학생들이 가지는 민감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영재들의 도덕적 민감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Gross, 1993; Roeper, 1988; Silverman, 1980; Ward, 1985) 공해문제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영재학생 들은 일반학생들과는 달리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걱정하며 이러한 민감성이 학교생활 중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부당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가 되고 이를 어렵게 받아들이며 결국에는 학교를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학교학습에 흥미도 없고 마땅히 친구도 없는 학교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데 학교 현실은 그렇지 못했음을 볼 수 있었다. Coley(1995)의 연구나 Drapela(2006)의 연구를 보면, 가족들은 오히려 문제를 일찍 알게 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학교 에서 좀 더 많이 개입해주시기를 바라는데 부모들이 바라는 것만큼 학교에서 개입해주시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Hansen과 Toso(2007)의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 으로 나타났는데, 영재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교사들은 영재학생의

심리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개입하기보다는 이를 덮으려고만 하였다는 것이다. Thorp(2004)의 연구에서도 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은 주로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빠르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발생하는 교사와의 갈등이 원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박창남과 도종수(2003)도 청소년 학교중퇴의도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회귀분석 결과 학습내용의 불만, 학교교칙의 불만, 교사의 낙인이 중퇴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영재학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와의 갈등이 나타났는데 은진이는 좀 더 드러나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고 선우는 성격상 혼자 속으로 삭이며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학교에서는 영재학생들과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영재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려는 배려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학교를 중퇴한 영재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영재학생들보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고 그들의 부모들도 자녀의 학업에 대하여 관심이 부족하였다고 하였는데(Renzulli & Park, 2000)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가정이 넉넉하여 자녀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무리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도 갈 곳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중퇴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모 효과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것일지 부정적인 것일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융통성 있는 배치이다. El-Zraigat(2012)는 학교가 한 가지 커리큘럼이나 해결방안을 가지고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양쪽 끝에 있는 학생들에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Janey(2002)의 제안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고등학생들은 4년이나 5년 정도 학교에 다니게 함과 동시에 우수한 고등학생들은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영재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미 학습에 흥미를 잃고 학교에서 마음이 떠나가는 것을 고려해볼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적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상담이다. 영재가 현실에서 좌절을 겪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 진부한 수업내용 때문에 지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하거나 교사와 어려움을 겪어도 이를 드러내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아무런 개입 없이 지속되면서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좌절감을 극복할 방법을 특별히 배우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의논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부적응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Friend와 Bursuck(2002)는 그렇기 때문에 교사, 행정가, 학부모 또는 다른 전문가들이 영재학생들의 이러한 특별한 필요에 대해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하여는 가능한 빨리 개입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Cole, 1995; Drapela, 2006)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재학

생들의 정서적 발달은 학업성취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이 매우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부적응을 감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지녀야만 영재가 지닌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연수이다. 영재와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재교사의 자질을 심어주고자 영재교육 연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영재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많이 있으며 영재교육 연수를 받은 교사들 중에도 더 이상 영재교육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Jancy(2002)는 그의 연구에서 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교사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긍정적인 교사는 정규 분포 학생들과 다른 양극에 있는 학생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수업 내용이나 방식을 수정하면서 조절하는 것을 기꺼이 해내었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뉴욕주 근방에 있는 몇몇 학교에서는 양극에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존의 커리큘럼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였다고 하였다. 모든 일반교사들이 영재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개입을 해 줄 수 있도록 영재교육 연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그것을 발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고 좀 더 학생들의 필요와 수준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학교를 중퇴한 과학영재학생 두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따른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이나 영재교육에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좀 더 많은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할 것을 제안해본다.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학교나 영재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이러한 영재학생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찾아보는 것은 추후 영재교육이 더욱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기태, 류기형, 최송식, 최인욱, 홍봉선, 남미애(1996).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중퇴생의 생활과 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연구**, 6, 165-198.
- 김성애, 강문희(2005). 사회극이 고등학교 복학생의 학교적응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심리치료**, 5(2), 1-18.
- 박수민(1998). 복교를 희망하는 중퇴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4(1), 25-46.
- 박창남, 도중수(2003). 청소년 학교중퇴의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207-238.
- 윤여홍(2000).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한국심리학회: 일반**, 19(1), 79-101.
- 이종승(2009). **교육, 심리, 사회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정준교(2001). 학교문화유형, 학교조직몰입 및 학교중퇴의도의 관계. **연세경영연구**, 38(1),

133-168.

- Altman, R. (1983).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search model. *Roeper Review*, 6(2), 65-68.
- Bain, S. K., Bliss, S. L., Choate, S. M., & Sager-Brown, K. (2007). Serving children who are gifted: Perceptions of undergraduates planning to become teacher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30, 450-478.
- Beatty, A., Neisser, U., Trent, W., & Heubert, J. (2001). *Understanding dropouts: Statistics, strategies, and high-stakes testing*.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 Clark, B. (1988). *Optimizing Learning. A Leadership Accessing Monograph: Education of Gifted and Talented Youth*. ED 315947.
- Coley, R. J. (1995). *Dreams deferred: High school dropouts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Policy Information Center.
- Dirkes, M. A (1983). Anxiety in the Gifted: Pluses and Minuses. *Roeper Review*, 6(2), 68-70.
- Drapela, L. (2006). Investigating effects of family, peer, and school domains on post dropout drug use. *Youth and Society*, 37, 316-347.
- El-Zraigat, I. A. (2012). Counseling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in jordanian inclusive schools: Conclusion and implication. *Gifted Child Quarterly*, 27(4), 25-29.
- Friend, M., & Bursuck, W. D. (2002). *Includ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s: A Practical Guide for Classroom Teachers*. ED 468984
- Gewertz, C. (2006). High school dropouts say lack of motivation top reason to quit. *Education Week*, 25, 1.
- Gross, M. (1993). *Exceptionally Gifted Children*. New York: Routledge.
- Hallahan, D., Kauffman, J., & Pollen, P. (2012). *Exceptional learners: A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Boston: Allyn & Bacon.
- Hansen, J. (2002). Cipher in the classroom. *Our Gifted Children*, 82, 14-20.
- Hansen, J. B., & Toso, S. J. (2007). Gifted dropouts: Personality, family, social and school factors. *Gifted Child Quarterly*, 30(4), 31-41.
- Hartsell, B. (2006). Teaching toward Compassion: Environmental Values Education for Secondary Students.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17(4), 265-271.
- Hayes, M. S., & Sloat, R. (1990). Suicide and the gifted adolescent.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3, 229-244.
- Hirschman, A. O. (1970). *Exit,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stat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uberman, A. M., & Miles, M. B. (2002). *The Qualitative Researcher's Companion: Classic and Contemporary Reading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 Hull-Blanks, E. E., Kerr, B. A., & Kurpius, S. E. (2004). Risk Factors of Suicidal Ideations and

- Attempts in Talented, At-Risk Girl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4(3), 267-276.
- Janey, C. (2002). Must high school last four years? *Educational Leadership*, 59(7), 64-66.
- Jost, K. (1997). Educating gifted students: Are U.S. schools neglecting the brightest young? *CQ Researcher*, 7, 265-268.
- Kirk, S., Gallagher, J., & Anastasiow, N. (2003). *Educating exceptional children*. Boston: Houghton Mifflin Com.
- Leonard, D. (1998). Listening to the early leavers. Classroom Management Resources. Retrieved June 22, 1998, from <http://www.ul.ie/epsresources/biblio/dlarticle.htm>
- McCoach, D. B., & Siegle, D. (2007). What predicts teachers' attitudes toward the gifted? *Gifted Child Quarterly*, 51, 246-255.
- The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5).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05*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Publication NCES 2005--094).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Piechowski, M. M. (1997). Emotional Giftedness: An Expanded View. ED 413695
- Renzulli, J. S., & Park, S. (2000). Gifted dropouts: The who and the why. *Gifted Child Quarterly*, 44, 261-271.
- Rimm, S. B. (2008). Why Bright Kids Get Poor Grades: And What You Can Do about It. ED 510195.
- Roeper, A. (1988). Should educators of the gifted and talented be more concerned with world issues? *Roeper Review*, 11, 12-13.
- Schwartz, W. (2002). *School dropouts: New information about an old problem*. Washington DC: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386515.
- Shore, B. M., & Delcourt, M. A. (1996). Effective Curricular and Program Practices in Gifted Education and the Interface with General Education.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0, 138-54.
- Silverman, L. (1980). Secondary Programs for Gifted Student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4(1), 30-42.
- Silverman, L. (1993). The developmental model for counseling the gifted. In Linda Kreger Silverman (Ed.), *Counseling gifted and talented* (pp.50-78). Denver: Love Publishing Co.
- Smith, D. (2007).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Making a difference*. Boston: Allyn & Bacon.

- Snyder, S. (2003). Boredom cited as a reason for thought of dropping out. *The Philadelphia Inquirer*, p. B1.
- Suh, S., & Suh, J. (2006). Educational engagement and degree attainment among high school dropouts. *Educational Research Quarterly*, 29, 11-20.
- Taylor, S. J., & Bogdan, R. (1998).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New York: John Willy & Son, Inc.
- Thorp, J. (2004). *Gifted adults speak out about school*. Unpublished paper, University of St. Thomas, Minneapolis, MN.
- Tomlinson, C. A., Tomchin, E. M., & Callahan, C. M. (1994).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of and responses to the differential needs of gifted students in their classroom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LA.
- Vaughn, S., Bos, C., & Schumm, J. (2007). *Teaching students who are exceptional, diverse, and at risk in the general education classroom*. Boston: Allyn & Bacon.
- Ward, V. S. (1985). *Differential education for the gifted*. Ventura, CA: Ventura County Superintendent of Schools Office.
- Whitmore, J. R. (1980). *Giftedness, conflict, and underachievement*. Boston: Allyn and Bacon.

= Abstract =

The Case Study of Science Gifted Students Who Dropped Out of School

Mooyul Huh

Kongju National University

Miran Chun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hy gifted students drop out of school by examining two gifted students who chose to drop out their schools. The result of triangulation interviews, observations, and analysis of the available document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in regular classrooms they were bored due to the long periods of time they had to wait and they were even unsatisfied at the gifted education programs in which they had high expectations for either; second, they did not have any friends to share the same interests; third, they had a hard time due to their emotional sensitivity and a sense of a justice that most other students overlooked; fourth, they had tough experiences with teachers who did not understand their educational and social needs; and finally, they had parents who did their best and tried to support their extraordinary child. From examining the reasons of the gifted students for deciding to leave the school, it should be noted that more interest and care needs to be given to those students.

Key Words: Drop-Out, Gifted students, Gifted education, Case study

1차 원고접수: 2014년 9월 18일
수정원고접수: 2014년 10월 9일
최종게재결정: 2014년 10월 9일